

##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통권 \_ 제 186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6년 9월 17일

# 함즐함울

www.pcltv.org

## 무지개 호스피스교육 참여

### 호스피스 사역은 인간 생명 사랑의 구체적 실천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 연구회, 삶과죽음을 생각하는 회, 무지개 호스피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35기 호스피스교육이 지난 14일 (목) 정동제일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오후 12시 30분 덕수궁 돌담길 옆에 위치한 덕구제일교회에 모인 100여

명의 수강생들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카톨릭과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도 있었다.

제1강 [호스피스, 그 의미와 역함부터 시작하여 [죽음의 철학], [말기 환자의 증상과 대응책] 등의 다양한 이론과 [호스피스의 감염과 안전관리], [호스피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말마사지] 등과 같은 실제적인 훈련까지 총 10주 26번의 강의로 이루어진다.

주님의교회 김양자 장로는 이 모임의 총무로 섬기고 있고, 주님의교회는 호스피스부서를 맡고 있는 우동운 목사 등 18명의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개강예배에 이어 첫 강의를 맡은 김수지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는 호스피스는 인간 생명 사랑으로써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배우는 많은 것들은 환자들 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랑의 돌봄]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호스피스의 실제, “사랑의 돌봄”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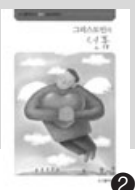
- 알아봐주기 : 다정한 호칭을 선택한다. 상대방에 대한 호칭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 동 참 하기 : ‘무엇을 하라’ 고 이야기 하지 말고 ‘무엇을 함께 하자’ 고 말한다.
- 공유 하기 : 사소한 것이라도 (물질, 마음 등) 을 상대방과 함께 나눈다.
- 경 청 하기 :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이야기를 끊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
- 동 행 하기 :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함께 있어주는 것은 큰 힘이 된다.
- 칭 찬 하기 :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행동에 칭찬과 감사를 표현 한다.
- 희망 불어 넣어 주기 :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 하고 세워준다.
- 용서 구하고 용서하기 :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 수 용 하기 :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기까지 노력한다.

## 2006-2학기 구역교재 추천자료

시중 대형서점 어디에서나 구입가능하며, 설만한 물가의 서점에서도 주문가능합니다.



1



2



3



4



5



6



7

1.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2. 「그리스도인의 성품」  
채이석, 이상화 지음, 소그룹하우스, 권당 3000원 & 3500원
3. 「복음전도, 빌하이벨스, 두란노, 3000원.
4. 「기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벨스 지음, 김보영 편역, MP 1800원
5. 「영적전쟁, 믿음의 싸움」  
존 화이트 지음, 김성녀 편역, MP 1800원
6.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삶 - 교제」  
새들백교회 평신도 리더십팀, 좋은씨앗 2,500원
7. 「인생의 사명을 나누는 삶 - 전도」  
새들백교회 평신도 리더십팀, 좋은씨앗 2,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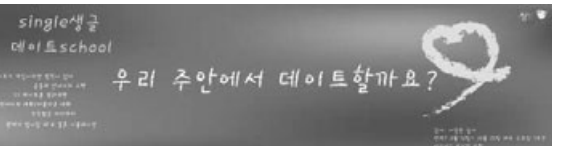


#### ‘행가람’ (행복한 기쁨을 만드는 사람들) 2면

소그룹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4개의 그룹으로 진행되고 있다.

#### 하프타임 강좌 “인생은 즐거워” 2면

#### 중 · 고등부 연합 비전트립 4면



## 꿈나무 사역팀 청소년 상담 세미나

일시 : 2006년 9월 10일, 17일, 24일 오후 1:00-4:00

강사 : 금명자 상담실장(한국청소년상담원)

대상 : 꿈나무사역팀원, 교회학교교사, 관심 있는 사람



※향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및 피택자  
기도회가 오늘 오후 3시 소예배실에 있습니다.

## 예배의 현장 :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지난 13일 수요일예배에서는 사무엘하 6장 1절~23절 "언약궤를 어깨에 메라"라는 주제로 박의일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언약궤를 운반하던 도중 '베레스웃사'를 경험한 다윗은 석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뜻대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었다.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야 다윗은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옮기는데 성공했고 춤을 추며 기뻐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였던 것이다.

박의일 목사는 "언약궤를 메고 출발한 25km의 여정이 바로 지금 시작되기를 바란다"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 성도, 가정을 기원하면서 말씀을 끝맺었다.



※그림: 사무엘상 6장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

## 오늘 기도



네 십자가를 무겁다 하지말라.  
내가 이미 너에게 능히 이길 힘을 주었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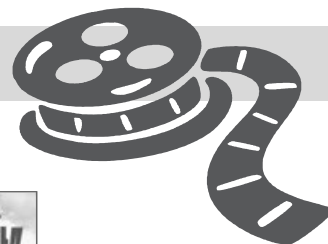
##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행가람) ‘평범한 부부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가정사역팀에서는 올 하반기 작은 모임에서 “고슴도치가 사랑에 빠질 때”라는 책을 중심으로 소그룹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4개의 그룹으로 진행되는 소그룹은 반드시 부부로 참여해야한다. 소그룹에서는 ‘평범한 부부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나눔과 실천을 병행하고 있다. 먼저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직접 제작한 교재를 중심으로 나누고, 한 주일동안 구체적인 과제를 실천한다. 가정사역팀은 강의보다 삶의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종합적 방향성을 가지고 작은 모임과 큰모임 그리고 특별행사 등으로 나눠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희성 목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역팀은 2006년 하반기부터 소그룹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작은 모임의 범위를 확산시켜가고 있다. 기존 구역에서 가정사역팀으로 방향을 전환하길 원하는 구역이나 개별가정들은 정희성목사(010-4227-8252)에게 연락하면 된다.

## 영/화/상/영



### 〈발리언트〉

감독: 케리 챔맨  
출연: 이완 맥그리거  
릭키 제바이스

디즈니가 전하는  
웃음과 감동의 애니메이션  
35.4km를 날아간 작은 영  
웅들의 초특급 어드벤처  
작은 날개짓으로 전하는  
위대한 감동이 펼쳐진다.

오늘 오후 4시 중예배실

## 하프타임 강좌 “인생은 즐거워”

###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는 분들 (주로 50세 이상)을 위한 2학기 첫 강좌가 9월 12일 화요일 첫 번째 시간이 3층 초등부실에서 이동훈 교수(단국대 음대, 살롬 성가대 지휘)의 “음악을 알면 인생이 즐겁다” 강의로 열렸다.

음악은 영혼의 울림이므로 음악으로 인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며, 찬양은 우리들의 하늘 문을 열어주고 인생에 대해 감사의 표시이다. 또한 생활에 활력을 주므로 음악을 즐기며 조용히 살고 천천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했다.

예배 중 찬송을 부를 때 목소리를 높여 힘차게

부르기를 바란다 했다. 강의 후 “고향 그리워” 가곡을 부르며 목소리를 높이고 즐겁게 부르는 방법 등을 배우기도 했다.

또한 하프타임머들로 구성된 앙코르 합창단에서는 제1남선교회와 더불어 10월 25일 주님의 교회 대강당에서 이동훈 집사의 지휘로 불우 이웃 돕기 합창제를 갖는다고 한다.

하프타임 강좌는 12월 5일까지 화요일 오후 2시에 매주 열리며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 2006-1 양육 클래스 취재

## “이렇게 기도하라” 정영환목사

매주 화요일 오후 10:30분부터 12시까지 3층 초등부실



양육클래스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란 어떤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였나?’를 배우며 우리가 자주 접하는 주기도문을 쉽게 이해하는 강의로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3층 초등부실에서 정영환 목사의 강

의로 열린다.

9월 12일 두 번째 강의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는 소제목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대화와 기도가 시작 된다는 강의를 하였다.

강의를 한 주 한 주 들으며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깊이 있게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와 원리와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마지막 12주는 종강 기도회로 마음 속 성령 속의 기도를 드리며 2학기 를 마친다 한다.

[정영환 목사의 추천 도서]

주기도문 강해  
(두란노)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사상과 신학의 요약이라 할 수 있다.

김세윤교수의 [주기도문 강해]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둔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강해하고 우리의 영성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 “요한의 신학” 박의일목사

매주 화요일 오후 10:30분부터 12시까지 지하 찬양대 연습실



항상 쉽지 않고 다가가기 어렵게만 느껴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영적전쟁의 관점에서 비교적 쉽게 풀이하는 클래스가 있다. 제목은 “요한의 신학”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지하 찬양대 연습실에서 박의일 목사의 강의로 9월 5일에 시작되어 12월 5일까지 14주에 걸쳐 진행된다.

9월 12일 두 번째 강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에 관해 120분간에 걸쳐 열강을 하였다. 이 강의에서 박의일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과 시편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스바냐, 스가랴와 같은 유대 묵시문헌 본문들과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에만 초기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요한계시록 이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날 박의일 목사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요 본문들을 언급하며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 청년공동체 ‘데이트스쿨’ 개강

## “건전한 이성교제는 영적 성숙과 사회생활에 긍정적”

청년공동체에서는 건전한 이성교제 문화 정착과 결혼 준비를 위한 예비과정으로 ‘데이트스쿨’을 9월 13일 개강했다. 10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3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되는 데이트스쿨에는 청년목회자연합과 Young2080의 부대표로 섬기며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데이트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현 집사가 강사로 섬긴다.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와 워크숍 시간과 질문과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트스쿨은 청년공동체서 70여명의 남녀 청년들이 신청하여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교회 내 청년들의 신앙 성숙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때론 잘못된 관계의 개입으로 교회를 옮기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기에 청년 공동체가 이번 데이트스쿨에 거는 기대는 생각 이외로 크다. 바르고 건전한 이성교제가 영적 성숙과 사회생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잘못된 이성관과 관계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과 상처들은 청년들의 영적 성숙과 인간관계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청년부 윤은성 목사는 이번 데이트스쿨과 함께 11월에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학교를 위해서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섭섭하다[서운하다,아쉽다] (regret)

오른손을 주먹 쥐고 왼손바닥을 한두번 친다.

Mission 함줄함줄,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기라성 같은(X) →  
빛나는 별 같은(O)”

우리가 흔히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라고 할 때 쓰이는 기라성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이란 뜻으로 일본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라성 같은 선배보다는 '빛나는 별 같은 선배'라는 표현으로 순화하여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역시 많이 쓰이고 있는 '와사비'라는 표현도 일본에서 들어온 외래어로, 십자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을 뜻합니다. 이러한 와사비 대신 우리말 '고추냉이'로 바꿔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중·고등부 연합 비전트립1

## 캄보디아 비전트립 셋째날 (지난 호에 이어서)



셋째날에는 11대의 택시로 울퉁불퉁한 길을 2시간 반 정도 달려서 현지교회인 뉴라이프 교회를 방문했다. 현지 목사님께서 6년 만에 지으신 애정이 담긴 교회였다.

아직 작지만 점점 확장하면서 전도할 계획이라고 하셨다. 뉴라이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를 하고 다시 스릴있는 도로를 달려서 도착한 다른 교회에서는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다.

다음으로 방문했던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땅따먹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했다.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낮가림 없이 다 친해질 수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나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녔던 싸이핀이라는 여자 아이가 기억에 남는다.

다음으로 방문했던 지역 교회는 한국 교회의 지원으로 2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2층은 예배당, 1층은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매마침 동네 아이들을 위한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캄보디아 청소년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여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몇몇 남자아이들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기도 했다.

## 교회생활 이모저모

## 2006 피택자교육



교회를 세우라(고전14:12)는 말씀을 따라 2006 임직자 선거에서 장로, 권사, 집사로 피택된 교우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피택자교육이 9월 10일 오후 2시 5층 찬양 연습실에서 있었다. 당회 서기인 권 오승 장로의 기도로

이론과정 10주, 실습과정 6주 총 16주의 짧지 않은 훈련의 과정이 시작 되었다.

이번 교육부터는 6주의 실습과정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다. 주일 교회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가 요청되는 주방부, 주차부, 봉사부 등 봉사현장에서 각 2주일씩 총 6주일 직접 체험

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로 인하여 교회의 여러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균형 잡힌 향존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교육을 이수한 피택자들은 2007년 6월 24일 창립 주일에 임직식을 하게 된다.

## 청소년 상담 세미나



복지 사역부의 꿈나무 사역팀은 지난 주일부터 3주에 걸쳐 청소년 상담원 교육

실장 금명자 교수(대구대학 심리학)의 청소년 상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위기의 청소년과의 상담을 통해 청소년을 어떻게 이해하며 청소년들의

문제 발생과정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의 변화 및 특성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들의 자율성·개성·독립성, 청소년들의 좌절, 부모와 교사들의 대처 반응 등 민감하게 현실적으로 접하는 문제와 그들의 반항 등 여러 문제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한다.

강의는 17일, 24일 5층 중보기도실에서 오후 1:00~4:00 까지 열리며 교회 학교 교사와 청소년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

## 오늘 30컵 예배 CCM박진희 콘서트

##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30 CUP 예배가 있다. 매월 셋째 주 찬양예배로 드려지는 30컵예배는 30컵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의 시간과 김현령 목사의 설교가 있다. 이번 예배는 특별히 CCM 사역자 “창문”의 박진희씨가 초대되어 함께 한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막힌 담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창문”이 되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추고자 결성되

었던 여성 듀엣 “창문”은 1996년, 1998년 두 차례의 앨범을 발표했다. “창문”은 한 사람의 도움하차로 잠시 사역이 중단되었으나 박진희는 “창문”이라는 이름의 깊은 의미와 이를 통해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창문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다시 사역을 시작하였다. 2000년 여성 솔로 “창문3 작은 길 그릇의 소망”, 2001년 “창문4 내 삶의 사랑, 감사, 기쁨을 주께 드리며...”를 발표하여 그녀의 노래를 통해 자신의 묵상과 고백을 주님께 올려 드리며 주님의 용사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다.

그녀는 30컵예배에 초대되어 그녀의 삶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증거하게 된다.